



신라 상대(上代) 박씨 왕족 계보와 왕위계승

Lineage of the Park House Royal figures in the Shilla dynasty's Sangdae(上代) period, and Succession of the throne

저자 (Authors)	양자량 Yang Ja-ryang
출처 (Source)	역사와현실 , (105), 2017.9, 151-180 (30 pages) YŎKSA WA HYŎNSI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 (105), 2017.9, 151-180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역사연구회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9871
APA Style	양자량 (2017). 신라 상대(上代) 박씨 왕족 계보와 왕위계승. 역사와현실, (105), 151-18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7 13:0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상대(上代) 박씨 왕족 계보와 왕위계승

양 자 량*

머리말

- 『삼국사기』 『삼국유사』 사료 검토
 - 박씨 왕족 내 계보 상 혼란 인물 고찰
 - 유리이사금의 비(妃)
 - 파사이사금의 부(父)
 - 일성이사금의 비(妃)
 - 일성이사금의 부(父)
 - 박씨 왕족 계보의 재구성과 왕위계승의 성격
- 맺음말

머리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나타나는 신라 상대 계보는 굉장히 복잡하여 하나로 정리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신라 상대 계보의 문제점을 보자면 첫째는 비합리적인 수명 혹은 재위기간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흘해이사금의 부(父)인 우로는 249년 왜인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우로가 죽

*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박사 수료

었을 당시 아들이 매우 어렸다고 하여 이 시기에 흘해는 이미 출생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본기에서 보이는 흘해이사금의 사망 시기는 356년으로 나와 있어 계산해보면 무려 100여 년 이상 생존한 셈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기록에서 비일비재하다.

둘째는 한 명의 인물이 여러 왕과의 중첩된 관계로 얽혀 있어 가계를 파악하는데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일지갈문왕은 유리이사금의 비(妃)의 부(父), 일성이사금의 부(父), 일성이사금 비(妃)의 부(父)로 나온다. 이렇게 한 인물의 중첩된 관계는 일차적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전거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며 각 사서의 찬자는 전거마다 달리 서술하고 있는, 즉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모두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물마다 혹은(或云), 일작(一作), 일운(一云) 등의 표현을 사용해 다수의 인물이 언급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라본기 초기기록의 기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1960~70년대 이루어졌다.¹⁾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는 그러한 초기 연구들에 바탕을 두되 그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할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²⁾ 기년상의 모순점을 해결하려 한 연구들이 이어졌다.³⁾ 현재도 삼국사기 신라 상대의 기년문제는 수정론에 입장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조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⁴⁾ 각 연구자들은 신라 상대 왕위계승을 설명할 때 중첩된 관계를

-
- 1) 김철준, 1962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역사학보』 17·18 ; 김광수, 1973 「新羅上古世系の再構成 試圖」 『동양학』 3 등
 - 2) 이인철, 1986 「신라상고세계의 재해석」 『청해사학』 4 ; 강종훈, 1961 「신라상고기년의 재검토」 『한국사론』 26 ; 선석열, 1996 「신라상고기년의 재조정」 『경대사론』 9 ; 이부오, 1999 「신라초기 기년문제에 대한 재고찰」 『선사와 고대』 13 등
 - 3) 한국고대사학회, 2007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 72쪽
 - 4) 박씨 왕족 계보와 관련된 인물 분석에 대한 주요 연구시는 2장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분석 없이 그저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언급할 뿐이다. 혹은 분석을 하더라도 사료상의 문제로 인해 그 논의가 합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인물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계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신라 상대 박씨 왕족⁵⁾의 계보를 고찰하고 중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분석하여 계보도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이로부터 나타나는 왕위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다. 박씨 왕위 계승이 단순하게 이어져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역학관계 혹은 대립관계는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는 신라 상대 왕위 계승에서 나타나는 역동성과 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삼국사기』 『삼국유사』 사료 검토

신라 상대 박씨왕으로는 1대 혁거세 거서간부터 8대 아달라이사금까지이다. 이 중 4대 탈해이사금은 석씨로 유리이사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이 후 다시 박씨인 파사이사금이 왕위를 이었다. 이 장에서는 박씨 왕족의 계보를 살펴보기 위해 4대 탈해이사금은 제외하겠다. 다만 후술할 왕위 계승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우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8대까지 왕의 계보 관련 사료를 모두 취합

5) 성(姓)과 씨(氏)는 보통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이순근, 1980 「신라시대 성씨취득과 그 의미」 『한국사론』 6). 본 글에서는 박씨라고 표현하였지만, 성(姓)과 다른 의미에서의 씨(氏)가 아님을 전제한다. 또한 친족의 표현을 씨족(氏族), 족단(族團) 등으로 쓸 수 있으나, 본 글은 1대 혁거세거서간~8대 아달라이사금(4대 탈해이사금 제외)의 박씨라고 하는 왕들의 계보도를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왕족(王族)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 각 사서별로 먼저 계보도를 그리고 두 계보도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방식을 취하겠다.

『삼국사기』 1대~8대까지 왕의 계보를 보여주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가-1. 1대 혁거세 거서간

- ① 시조는 성(姓)이 박씨(朴氏)이고 이름은 혁거세이다. 전한(前漢) 효선제(孝宣帝) 오봉(五鳳) 원년 갑자(서기전 57) 4월 병진<또는 정월 15일이라고도 하였다.>에 즉위하였다.⁶⁾
- ② 5년 봄 정월에 용이 알영정(闕英井)에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 어떤 노구(老嫗)가 보고서 이상히 여겨 거두어 키웠다. 우물의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자라면서 덕행과 용모가 뛰어났다. 시조가 이를 듣고서 맞아들여 왕비로 삼으니, 행실이 어질고 안에서 보필을 잘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두 성인이라 일컬었다.⁷⁾

가-2. 2대 남해 차차웅

왕위에 올랐다. 그는 혁거세의 적자(嫡子)이다. … 어머니는 알영부인(闕英夫人)이고 왕비는 운제부인(雲帝夫人)이다. <또는 아루부인(阿婁夫人)이라고도 하였다.> 아버지를 이어서 즉위하여 원년을 칭하였다.⁸⁾

가-3. 3대 유리이사금

왕위에 올랐다. 남해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운제부인이고 왕비는 일지갈문왕의 딸이다.<혹은 왕비의 성은 박씨이고 허루왕의 딸이라고도 하였다.>⁹⁾

- 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즉위년조 “始祖姓朴氏諱赫居世 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辰[一曰正月十五日] 卽位”
- 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5년 “春正月 龍見於闕英井 右脇誕生女兒 老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名之 及長有德容 始祖聞之 納以爲妃 有賢行能內輔 時人謂之二聖”
- 8)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즉위년조 “立 赫居世嫡子也 … 母闕英夫人 妃雲帝夫人[一云阿婁夫人] 繼父卽位稱元”
- 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즉위년조 “立 南解太子也 母雲帝夫人 妃日知葛文王之女也[或云妃姓朴許婁王之女]”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는 즉위하고 5년 뒤에 알영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남해 차차웅은 혁거세와 알영의 적자(嫡子)로서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남해차차웅의 왕비는 운제부인과 아루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가-3과 같이 유리이사금의 모(母)는 운제부인이라 하고, 후에 살펴보겠지만 『삼국유사』에서도 운제부인이 남해차차웅의 부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운제부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삼국사기』에서 보이는 일운(一云)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명 뒤에 나와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나 호칭을 말해주고 있다. 즉, 아루부인은 운제부인의 이칭(異稱)으로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남해차차웅의 ‘태자’라고 기록된 유리이사금은 일지갈문왕의 딸 혹은 허루왕의 딸 박씨와 혼인한다. 이렇게 다른 인물이 기록될 경우 유리이사금의 두 아들인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 기록에서 그 모(母)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은 그 모(母)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 유리이사금의 비(妃)가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

나-1. 5대 파사이사금

왕위에 올랐다. 유리왕의 둘째 아들이고<혹은 유리왕의 동생 나로(奈老)의 아들이라고도 하였다.> 왕비는 김씨 사성부인(史省夫人)으로 허루갈문왕의 딸이다.¹⁰⁾

나-2. 6대 지마이사금

왕위에 올랐다.<혹은 기미(祇味)라고도 하였다.> 파사왕의 적자(嫡子)이고 어머니는 사성부인이다. 왕비는 김씨 애례부인(愛禮夫人)으로 갈문왕 마제의 딸이다.¹¹⁾

1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즉위년조 “立 儒理王第二子也 [或云儒理弟奈老之子也] 妃金氏史省夫人 許婁葛文王之女也”

1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즉위년조 “立 [或云祇味] 婆娑王嫡子 母史省夫人 妃金氏愛禮夫人 葛文王摩帝之女也”

한편 파사이사금은 유리이사금의 차자(次子)라고 나오고 있으나 유리이사금의 동생인 나로(奈老)의 아들이라고도 나온다. 비(妃)는 허루갈문왕의 딸인 사성부인 김씨로 나오고 있다. 파사이사금의 적자(嫡子)인 지마이사금은 어머니가 사성부인이고, 비는 마제갈문왕의 딸 애례부인이라고 나와 있어 논란의 여지없이 정리할 수 있다.

다-1. 7대 일성이사금

왕위에 올랐다. 유리왕의 맏아들이고, <또는 일지갈문왕의 아들이라고도 하였
다.> 왕비는 박씨인데 지소례왕(支所禮王)의 딸이다.¹²⁾

다-2. 8대 아달라이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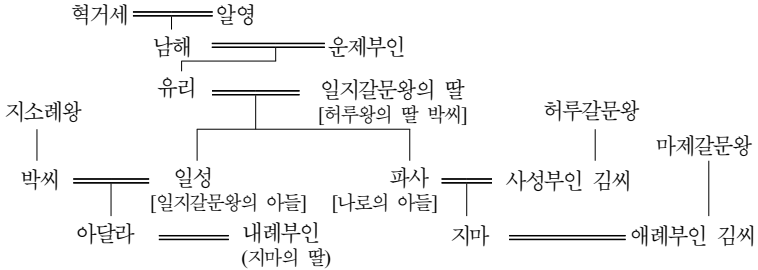
왕위에 올랐다. 일성왕의 맏아들이다. ... 어머니 박씨는 지소례왕의 딸이다. 왕
비는 박씨 내례부인(內禮夫人)으로 지마왕의 딸이다.¹³⁾

지마이사금을 이은 일성이사금은 유리이사금의 장자(長子), 즉 파사이사금의 형이자 지마이사금의 백부이다. 파사이사금에서 지마이사금은 직계로 왕위가 이어졌으나 일성이사금은 지마이사금의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파사이사금부터 일성이사금에 이은 이 시기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당시 왕위 계승의 원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한편 일성이사금은 유리왕의 장자 또는 일지갈문왕의 아들이라고 나온다. 비(妃) 박씨는 지소례왕의 딸인데, 지소례왕은 이 기록 외에는 나오지 않아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아달라이사금은 일성이사금의 장자로 비(妃)는 지마이사금의 딸 내례부인 박씨이다.

1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즉위년조 “立 儒理王之長子[或云日知葛文王之子] 妃朴氏支所禮王之女”

1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2, 아달라이사금 즉위년조 “立 逸聖長子也… 母朴氏支所禮王之女 妃朴氏內禮夫人 祇摩王之女也”

지금까지 살펴본 『삼국사기』 박씨왕족의 계보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삼국사기』 박씨왕의 계보도

- * () 부연설명
- ** [] 중첩인물
- *** 왕호는 생략

다음은 『삼국유사』에서 박씨왕의 계보를 보여주는 기사를 정리하겠다. 『삼국유사』 왕력은 왕의 즉위년과 간단한 계보도, 재위기간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그러나 왕력편은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판본끼리 일치하지 않는 글자가 많다보니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 아래에 정리된 사료는 그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덕본을 기본으로 하였다.

라-1. 제1 혁거세

- ① 성은 박씨이고 알에서 태어났다. 나이 13살 되던 甲子에 즉위하여 60년간 다스렸다. 왕비는 아리영(娥伊英), 알영(娥英)이다.¹⁴⁾
- ②… 태자 남해왕이 왕위를 이었다.¹⁵⁾

라-2. 제2 남해차차웅

아버지는 혁거세이고, 어머니는 알영(闕英)이다. 성은 박씨이다. 왕비는 운제부

14) 『삼국유사』 권1, 왕력 “第一赫居世 姓朴 卵生 年十三甲子即位(BC.57) 理六十年 妃娥伊英娥英”
 15) 『삼국유사』 권1, 기이 1, 신라시조혁거세왕 “… 太子南解王繼位”

인(雲帝夫人)이다. 갑자에 즉위하여 20년간 다스렸다.¹⁶⁾

라-3. 제3 유리이사금

아버지는 남해왕이고, 어머니는 운제이며, 왕비는 사요왕의 딸 김씨이다. 갑신에 즉위하여 33년간 다스렸다.¹⁷⁾

1대 혁거세 거서간과 2대 남해차차웅은 『삼국사기』와 일치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역시 『삼국유사』에서도 남해차차웅의 비(妃)가 운제부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노래(祭禮), 유례(儒禮), 유리(儒理)를 혼동해서 쓰고 있으므로¹⁸⁾ 여기서 노래이질금은 곧 『삼국사기』의 유리이사금이다. 또한 이질금과 이사금은 다른 왕호가 아님을 왕력에서도 밝히고 있다.¹⁹⁾ 왕력에서는 유리이사금의 비(妃)로 사요왕의 딸 김씨를 언급하였다. 사요왕은 이 기록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마-1. 제5 파사이사금

성은 박씨이다. 아버지는 노래왕이고, 어머니는 사요왕의 딸이다. 왕비는 사초부인(史肖夫人)이다. 경진에 즉위하여 32년간 다스렸다.²⁰⁾

마-2. 제6 지마이사금

성은 박씨이다. 아버지는 파사이고, 어머니는 사초부인이다. 왕비는 마제국왕의

16) 『삼국유사』 권1, 왕력 “第二南解次次雄 父赫居世 母闕英姓 朴氏 妃雲帝夫人 甲子立 理二十年”

17) 『삼국유사』 권1, 왕력 “第三祭禮尼叱今 父南解 母雲帝 妃辭要王之女金氏 甲申立 理三十三年”

18) 『삼국유사』 기이, 제3대 노래왕조 “朴祭禮尼叱今 [一作儒禮王] 初王與妹夫脫解讓位 脫解云 凡有德者多齒 宜以齒理試之 乃咬餅驗之 王齒多 故先立 因名尼叱今 尼叱今之稱 自此王始 劉聖公更始元年癸未卽位”
『삼국유사』 기이, 미추왕 죽엽군조 “第十四 儒理王代 伊西國人 來攻金城”

19) 『삼국유사』 권1, 왕력 “第三祭禮尼叱今…尼叱今或作尼師今”

20) 『삼국유사』 권1, 왕력 “第五婆娑尼叱今 姓朴氏 父祭禮王 母辭要王之女 妃史肖夫人 庚辰立 理三十二年”

딸 □례부인(□禮夫人)으로 또는 애례(愛禮)라고도 하며 김씨이다. 임자에 즉위하여 23년간 다스렸다.²¹⁾

『삼국유사』는 파사이사금의 비(妃)를 사초부인이라고 하였고, 『삼국사기』에서는 사성부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초(肖)와 성(省)의 한자의 모양이 비슷하여 혼동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사초부인은 『삼국사기』의 사성부인과 동일인물이며 허루갈문왕의 딸이라 할 수 있다. 지마이사금의 비(妃)는 마제국왕의 딸 □례부인(□禮夫人)으로 나온다. 여기서 마제국왕은 마제갈문왕이며 따라서 □례부인은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애례부인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서술 상 ‘비마제국왕지녀 □례부인(妃磨帝國王之女 □禮夫人)’을 애례부인으로 보면, 뒤에 세주로 나오는 ‘일작애례김씨(一作愛禮金氏)’와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일작(一作)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자가 다르나 음이 비슷한 경우 혹은 음이 같은 경우를 표시한다. 앞서 살폈듯이 일운(一云)의 표현이 동일인물의 이칭(異稱)을 표현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작(一作)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인물을 가리키는 혹은(或云)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례부인(□禮夫人)은 애례(愛禮)와 유사한 음을 지닌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바-1. 제7 일성이사금

아버지는 노래왕의 형으로 또는 지마왕이라고도 한다. 왕비는 □례부인(□禮夫人)으로 일지갈문왕의 딸이다. □□례부인(□□禮夫人)은 지마왕의 딸이다. 어머니는 이간생부인으로 또는 □□왕부인(□□王夫人) 박씨라고 한다. 갑술에 즉위하여 20년간 다스렸다.²²⁾

21) 『삼국유사』 권1, 왕력 “第六祇磨尼叱今[一作祇味] 姓朴氏 父婆娑 母史肖夫人 妃磨帝國王之女 □禮夫人 [一作愛禮金氏] 壬子立 理二十三年”

22) 『삼국유사』 권1, 왕력 “第七逸聖尼叱今 父弩禮王之兄[或云祇磨王] 妃□禮夫

이 나타나는데, 일지갈문왕의 딸(사기), 허루왕의 딸(사기), 사요왕의 딸(유사)이다. 두 번째, 파사이사금의 부(父)이다. 이는 유리이사금(사기), 유리이사금의 동생 나로(사기), 노래왕(유사) 총 3명이나 유리이사금과 노래왕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노래왕(유사)는 제외시키겠다. 세 번째, 일성이사금의 비(妃)이다. 여기에는 지소례왕의 딸(사기), 일지갈문왕의 딸(유사), 지마왕의 딸(유사) 총 3명이 나타난다. 네 번째, 일성이사금의 부(父)이다. 가장 많은 4명의 인물이 보이는데 유리이사금(사기), 일지갈문왕(사기), 노래왕의 형(유사), 지마이사금(유사)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4개의 인물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2. 박씨 왕족 내 계보 상 혼란 인물 고찰

박씨 왕족 계보에서 혼란이 되는 인물들을 살펴보기 전에 기존 견해를 정리하겠다.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며 큰 주제를 논하는 가운데 일부로 다루지는 정도이다. 김철준은 유리이사금의 비(妃)를 사요왕의 딸 김씨로 보아 유리-파사-지마 3대가 모두 김씨와 혼인을 맺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²⁴⁾ 또한 유리이사금 뒤에 아들 파사이사금, 파사이사금 뒤에 아들 지마이사금이 즉위하였으므로 지마이사금 뒤에 일성이사금이 아들로서 즉위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는 박씨 세계(世系)가 직계로 계승하는 통일성을 보인다고 하였다.²⁵⁾

이기백은 일성이사금의 부(父)를 새로운 인물 박아도로 비정하였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일성이사금이 박아도를 갈문왕으로 책봉했다고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왕의 부(父)를 갈문왕으로 책봉하는 경향에 비추

24) 김철준, 1962 앞의 논문, 165쪽

25) 김철준, 1968 「신라시대의 친족집단」 『한국사연구』 1

어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²⁶⁾ 또한 일성이사금의 비(妃)는 지소례왕의 딸로, 유리이사금의 비(妃)는 일지갈문왕의 딸로 보았으나²⁷⁾ 이 연구 자체가 갈문왕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이렇게 보는 근거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권대석은 유리이사금의 비(妃)로 박씨와 김씨가 보이지만, 김씨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를 통해 유리이사금은 박(朴)·김(金)의 결합을 통해 석씨(昔氏) 부족을 압도하면서 즉위하였다고 추측하였다.²⁸⁾

한편 선석열은 유리이사금이 진한 소국의 왕인 사요왕의 딸과 혼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 혼인은 탈해이사금과의 이사금 경쟁에서 석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성이사금은 일지갈문왕의 아들로써 즉위하였으며, 그의 혼인 역시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소례라는 다른 소국의 왕과 혼인관계를 맺고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²⁹⁾ 서의식은 유리이사금의 비(妃)를 일지갈문왕의 딸 박씨로, 일성이사금의 부(父)는 유리이사금이며, 비(妃)는 지소례왕의 딸 박씨로 보았다.³⁰⁾ 박대재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유리이사금의 비(妃)를 일지갈문왕의 딸과 허루왕의 딸 두 명으로 보고 일성이사금은 일지갈문왕의 딸을, 파사이사금은 허루왕의 딸을 각각 모후로 하는 이모형제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삼국사기』에서 일성이사금을 일지갈문왕의 아들로 본 것은 아마도 일지갈문왕의 외손이라는 사실이 와전되거나 당시의 친족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³¹⁾

2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15년 “封朴阿道爲葛文王”

이에 대해 선석열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사왕계의 유력자인 아도를 갈문왕에 책봉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선석열, 2011 「사료국의 지배구조와 갈문왕」 『역사와 경계』 80).

27) 이기백, 1973 「新羅時代의 葛文王」 『歷史學報』 58

28) 권대석, 1989 「新羅上古 三姓集團의 王位繼承에 대한 考察」 『論文集』 11

29) 선석열, 2011 앞의 논문

30) 서의식, 2007 「新羅‘上代’葛文王의 冊封과 聖骨」 『歷史教育』 104

강종훈은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의 계보에 이설(異說)이 있다는 것은 모두 유리이사금의 직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왕위는 가능한 단순한 계통을 따라 계승되어야 한다는 후대의 관념에 의해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을 유리이사금의 아들로 직결시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장선상에서 파사이사금은 나로의 아들로, 일성이사금은 일지갈문왕의 아들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았다.³²⁾ 이 견해는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을 둘 다 유리이사금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시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신학태는 이기백의 견해와 같이 일성이사금을 박아도의 아들로 보고, 유리이사금의 두 아들은 일성이사금과 파사이사금이 아니라 아도와 파사이사금으로 파악하였다. 즉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은 형제가 아니라 숙질관계로 보았다.³³⁾

지금까지의 연구는 필요에 따라 각각의 사료를 선택하여 해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료를 선택했을 시 상치(相馳)되는 사료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위계승을 보여주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료들을 동시에 검토하면서 오류가 있는 사료는 제하고 가능성이 높은 사료를 취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료들을 상호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지를 이어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두었다. 첫 째, 두 사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두 사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면서도 한 사서가 세주로 다른 전승을 기록했을 경우는 예외를 두어 재검토한다. 둘째, 『삼국사기』의 즉위년 조와 『삼국유사』 왕력편 이 외에 왕위계승 또는 그 인물

31) 최광식 박대재 역, 2014 『삼국유사 3 왕력』 고려대학교출판부, 72쪽 ; 박대재, 2014 「신라 초기 國邑과 6村」 『신라문화』 43

32) 강종훈, 2000 「이사금시기 ‘삼성족단체제’의 성립과 전개」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33) 신학태, 2000 「新羅 初期 朴氏·昔氏集團의 對立에 대한 小考」 『명지사론』 11·

이 보이는 사료가 있다면 그것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셋째, 두 사서의 사료를 상호 보완할 경우 그 결과가 다른 인물 혹은 계보에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4명의 인물들을 살펴보겠다.

1) 유리이사금의 비(妃)

먼저 유리이사금의 비(妃)부터 살펴보자. 유리이사금의 비(妃)는 일지갈문왕의 딸(사기), 허루왕의 딸(사기), 사요왕의 딸(유사)로 나와 있다. 먼저 허루왕의 딸이 될 수 있는지 보겠다.

- 사-1. 일찍이 파사왕이 유찬(楡澗)의 못 가에서 사냥할 때 태자가 따라 갔다. 사냥을 마친 후에 한기부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찬 허루(許婁)가 잔치를 베풀었다.³⁴⁾
- 사-2. 술이 취하자 허루의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와서 춤을 추었다. 이찬 마제(摩帝)의 아내 역시 자기 딸을 이끌고 나왔는데, 태자가 보고서 기뻐하였다. 허루가 언짢아하자, 왕이 허루에게 말하였다. “이곳 땅 이름이 대포(大庖)인데, 공은 이곳에서 잘 차린 음식과 맛있는 술을 마련하여 잔치를 열어 즐겁게 해주었으니 마땅히 주다(酒多)의 위계를 주어 이찬보다 위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는 마제의 딸을 태자의 짝으로 삼았다. 주다는 후에 각간(角干)이라 일컬어졌다.³⁵⁾

파사이사금의 비(妃)는 허루갈문왕의 딸 김씨이다. 사-1에서 파사이사금

3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즉위년 “初婆娑王獵於楡澗之澤 太子從焉 獵後 過韓歧部 伊澗許婁饗之”

3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즉위년 “酒酣 許婁之妻 携少女子出舞 摩帝伊澗之妻 亦引出其女 太子見而悅之 許婁不悅 王謂許婁曰 ‘此地名大庖 公於此 置盛饌美醢 以宴衍之 宜位酒多 在伊澗之上’ 以摩帝之女 配太子焉 酒多後云角干”

과 태자(지마)가 한기부를 지날 때 허루가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허루와 왕실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즉, 잔치는 사위와 외손자를 위한 것이다. 한편 사-2를 보면 허루의 아내와 마제의 아내는 각자 딸을 선보여 태자와 혼인시키고자 한다. 만약 허루의 어린 딸이 태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허루는 파사이사금에 이어 자기 딸을 태자의 비(妃)로 만들게 된다. 『삼국사기』처럼 유리아사금의 비(妃)를 허루왕의 딸이라고 본다면, 허루가 아무리 어린 딸이 있다 해도 기년 상 유리-파사-지마 3대에 걸쳐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허루에게 다른 처가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며 허루 관련 사료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 따라서 허루왕의 딸이 유리아사금의 비(妃)인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유리아사금의 비(妃)가 일지갈문왕의 딸인지, 사요왕의 딸인지는 남아 있는 사료 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 파사이사금의 부(父)

파사이사금의 부(父)는 유리아사금(사기), 유리아사금의 동생 나로(사기), 노례왕(유사)으로 나온다. 일단 유리아사금과 노례왕이 같은 인물임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삼국사기』에서 파사이사금의 부(父)로 언급된 유리아사금의 동생 나로는 『삼국사기』 이 외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다. 따라서 사료 상으로는 파사이사금의 부(父)가 유리아사금인지 동생 나로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다만 이 글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사서의 공통적인 기록이 유리아사금(노례왕)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그 전승을 따르겠으나 차후 ‘나로’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서 ‘나로’ 전승의 신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3) 일성이사금의 비(妃)

일성이사금의 비(妃)는 지소례왕의 딸(사기), 일지갈문왕의 딸(유사), 지마왕의 딸(유사)이 나와 있다. 『삼국유사』는 일성이사금의 비(妃)를 ‘비□례부인 일지갈문왕지녀 □□례부인 지마왕지녀(妃□禮夫人 日知葛文王之女 □□禮夫人 祗磨王之女)’라 하여 두 명을 언급하고 있다. 만약 한 명이라면 □□례부인 앞에 혹은(或云) 등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일성이사금의 비(妃)는 일지갈문왕의 딸과 지마왕의 딸 총 2명이거나 둘 중의 한 명은 잘못 기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아달라이사금의 비(妃)를 지마왕의 딸 내례부인이라고 하였다. 『삼국유사』는 아달라이사금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 아달라이사금의 비(妃)는 지마왕의 딸 내례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마왕의 딸이 일성이사금의 비(妃)로 기록된 『삼국유사』의 것은 잘못 기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일성이사금의 비(妃)가 지소례왕의 딸인지, 일지갈문왕의 딸인지는 사료 상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박씨 왕족 계보에서 누구인지 그 정체가 혼란스러운 인물 중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일지갈문왕이다. 앞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유리이사금의 비(妃)와 일성이사금의 비(妃)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일지갈문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 실마리는 일성이사금의 부(父)를 검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일성이사금의 부(父)

일성이사금의 부(父)는 유리이사금(사기), 일지갈문왕(사기), 유리이사금의 형(유사), 지마이사금(유사) 총 4명이 언급된다. 먼저 지마이사금을 일성

이사금의 부(父)로 보는 것은 일성이사금의 전왕(前王)이 지마이사금이기 때문에 후대의 부자상속 관념에 의해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비록 지마이사금의 전왕(前王)이 아버지 파사이사금이라 할지라도 파사이사금 이전에 반드시 부자상속으로 왕위가 계승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지마이사금이 아들 없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³⁶⁾ 일성이사금의 부(父)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일차적으로 일성이사금을 유리이사금의 큰 아들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성이사금의 부(父)에 대한 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성이사금이 유리이사금의 아들이 아니거나 다른 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³⁷⁾ 그 중에 일성이사금의 부(父)는 과연 누구일까. 만약 일성이사금의 부(父)의 후보로서 일지갈문왕(사기)과 유리이사금의 형(유사)을 동일인물로 연결시켜 본다면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⁸⁾ 즉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두 계보를 상호 보완하여 일지갈문왕이 곧 유리이사금의 형이자 이를 일성이사금의 부(父)라고 본다면 일성이사금의 비(妃)는 당연히 일지갈문왕의 딸이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성이사금의 비(妃)는 자연스럽게 지소례의 딸이 된다. 비록 신라는 근친혼이 존재하긴 했으나 형제 간 혼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일성이사금이 일지갈문왕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 비(妃)는 일지갈문왕의 딸이 될 수 없다. 다만 유리이사금의 비(妃)는 일지갈문왕의 딸인지 사요왕의 딸인지 단정 짓기 힘들다. 왜냐하면 일지갈문왕이 유리이사금의

3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23년조 “秋八月 王薨 無子”

37) 강종훈, 2000 앞의 논문

38) 선석열은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성이사금의 계보기록이 아달라이사금의 것과 혼탁되어 있다고 보아 사료비판을 통해 일성이사금과 아달라이사금의 계보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중 일성이사금의 아버지는 유리왕의 형으로서 일지이며, 왕의 아버지로서 갈문왕에 추봉되어 일지갈문왕으로 전승되었다고 보았다(선석열, 2015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해안, 43쪽).

지고 있어 질서 정연한 계보도를 그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초기 기록을 검토하여 신라 상대 박씨 왕족의 계보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시 박씨 왕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에 놓여 졌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위 계보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당시의 정치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을 보면, 한 가지 경향성이 보인다. 즉, 갈문왕의 자격이 왕비의 부(父)인 것이다.³⁹⁾ 허루갈문왕과 마제갈문왕처럼 일성이사금의 비(妃)의 부(父)인 지소례왕 역시 사료 상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향성으로 보면 갈문왕으로 책봉되었을 것이다.⁴⁰⁾ 만약 유리이사금의 비(妃)가 일지갈문왕의 딸이라면, 일지갈문왕이 갈문왕으로 된 시기는 아마 그의 딸이 유리이사금과 혼인한 뒤에 왕비의 부(父) 자격이 주어진 때일 것이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유리이사금의 비(妃)가 일지갈문왕의 딸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지소례왕처럼 사요왕도 갈문왕으로 칭했으나 기록상 왕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1. 앞서 남해가 죽자 유리가 마땅히 왕위에 올라야 했는데, 대보(大輔)인 탈해가 본래 덕망이 있었던 까닭에 왕위를 미루어 사양하였다. 탈해가 말하였다. “임금의 자리는 용렬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내가 듣건대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齒]가 많다고 하니 떡을 깨물어서 시험해보자.” 유리의 잇금[齒理]이 많았으므로 이에 좌우의 신하와 더불어 그를 받들어 세우고 이사금(尼師今)이라 불렀다.⁴¹⁾

39) 이기백, 1973 앞의 논문, 2쪽. 이 논문에서는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밝히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40) 이 지소례왕은 허루갈문왕이 허루왕, 마제갈문왕이 마제국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소례갈문왕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서룡, 이부오 외 역, 2008 「신라갈문왕고」 『신라사연구』, 서경문화사).

4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즉위년 조 “初南解薨 儒理當立 以大輔脫解 素有德望 推讓其位 脫解曰 ‘神器大寶 非庸人所堪 吾聞聖智人多齒 試

- 아-2. 김대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사금은 방언으로 잇금을 일컫는 말이다. 옛날에 남해(南解)가 장차 죽을 즈음에 아들 유리(儒理)와 사위 탈해(脫解)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너희 박(朴)석(昔) 두 성(姓)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위를 이어라.’고 하였다. 그 후에 김씨 성이 또한 일어나 3성(三姓)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서로 왕위를 이었던 까닭에 이사금이라 불렀다.』⁴²⁾
- 아-3. 가을 9월에 왕이 병환이 들자 신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탈해는 그 신분이 임금의 친척이고 지위가 재상의 자리에 있으며 여러 번 공명(功名)을 드러내었다. 짐(朕)의 두 아들은 재주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내가 죽은 후에 그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니, 나의 유훈을 잊지 말라!”⁴³⁾
- 아-4. 왕위에 올랐다. 그때 나이는 62세였다. … 유리왕이 장차 죽을 즈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왕이 유언으로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아들이나 사위를 논하지 말고 나이가 많고 또한 어진 사람으로 왕위를 잇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내가 먼저 왕위에 올랐다. 이제 마땅히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어야겠다.”⁴⁴⁾

위 사료는 이 시기 왕위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다. 아-1에서 보이는 왕위 계승자의 조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이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치아의 개수를 세었다. 한편 아-2에서 김대문은 이사

以餅噉之’ 儒理齒理多 乃與左右奉立之 號尼師今”

- 4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즉위년 조 “金大問則云 『尼師今方言也 謂齒理 昔南解將死 謂男儒理·婿脫解曰 ‘吾死後 汝朴昔二姓 以年長而嗣位焉’ 其後 金姓亦興 三姓以齒長相嗣 故稱尼師今』”
- 4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34년조 “秋九月 王不豫 謂臣寮曰 ‘脫解身聯國戚 位處輔臣 屢著功名 朕之二子 其才不及遠矣 吾死之後 俾卽大位 以無忘我遺訓’”
- 4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즉위년조 “立 時年六十二 … 儒理將死 曰 “先王顧命曰 ‘吾死後 無論子婿 以年長且賢者 繼位’ 是以寡人先立 今也 宜傳其位焉”

금의 연원을 찾으며 당시 왕위 계승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아-3, 아-4에서는 남해차차웅과 유리이사금이 왕위 계승자는 어진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당시 왕위 계승의 원칙은 전왕(前王)의 유언에 따라 직계 혹은 적장자 우선 이 아닌 능력이 있고, 연장자가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이 세워졌던 탈해이사금을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 탈해이사금은 남해차차웅의 딸 아효부인과 혼인하여 유리이사금과는 매형지간이다.⁴⁵⁾ 즉, 과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은 탈해이사금보다 한 세대 아래에 있었다. 탈해이사금은 유리이사금대 대보(大輔)의 위치에 있으며 여러 번 공명을 드러내었다고 하니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62세였다는 점에서 연장자 조건도 맞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왕위 계승자였던 것이다.

<그림 3>에 맞춰 왕위 계승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못한 곳이 보인다. 먼저 남해차차웅이 죽은 뒤 유언에 따라 어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는 과정에서 일지갈문왕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보통 왕이 되지 못했거나 왕위 계승자를 가리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유소(幼少)하거나 불초(不肖)하거나 일찍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유소하였다면 동생인 유리이사금도 역시 어렸기 때문에 왕위를 잇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불초해서 부득이하게 왕이 되지 못했다면 자기 대신 왕이 된 동생과 딸

45) 아효부인을 박씨가 아닌 김씨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탈해이사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 남해차차웅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으나 즉위한 후 김씨족과의 결속을 위해 김씨인 아효부인과 혼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는 석씨계의 왕이 박씨계의 비를 취한 사례가 없고, 탈해의 아들인 구추의 부인도 김씨였으며 아효부인(阿孝夫人)은 아부(阿婁)·알영(闕英)과 같이 김부족(金部族)의 명칭이라는 점 등이 있다(권대석, 1989 앞의 논문, 6쪽). 그러나 『삼국유사』권1, 왕력에서는 남해왕의 딸 아니부인(阿尼夫人)과 기이2, 第四脫解王조에서 남해왕이 만공주 아니부인(阿尼夫人)과 혼인한 것으로 나온다. 아효(阿孝)=아로(阿老)=아니(阿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효부인은 박씨가 분명하다. 김씨인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을 혼인시켰을 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일지갈문왕은 인간생부인 사이에서 최소 아들(일성이사금)과 딸을 낳은 뒤 아버지인 남해차차웅이 죽기 전에 먼저 죽어 자연스럽게 그 왕을 가리는 과정에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유리아사금이 일지갈문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시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사금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왕이 되기 전이었을 것이다. 유리아사금은 왕이 된 후 자신의 형을 일지갈문왕으로 추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일지갈문왕은 갈문왕으로 추봉된 최초의 사례이자 근친혼의 최초 사례가 된다.⁴⁶⁾

정리하자면 일지갈문왕과 유리아사금은 남해차차웅의 두 아들이다. 유리아사금은 일지갈문왕의 딸 혹은 사요왕의 딸과 혼인하고 파사이사금을 낳았다. 일지갈문왕은 인간생부인과 혼인하여 일성이사금을 낳았다. 유리아사금은 왕위를 아들이 아닌 탈해이사금에게 물려주었고,⁴⁷⁾ 탈해이사금 이후 왕위 계승자의 자리를 두고 남해차차웅 장자(일지갈문왕)의 아들인 일성이사금과 차자(유리아사금)의 아들인 파사이사금의 대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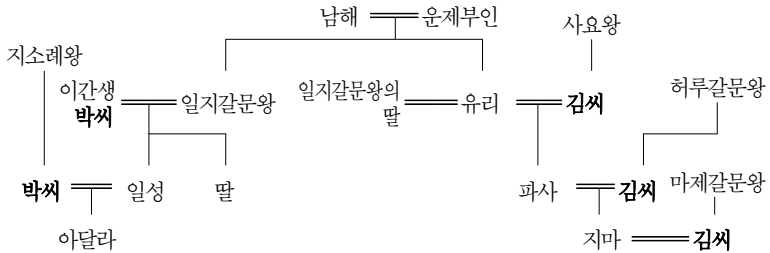
자-1. 일찍이 탈해가 죽었을 때 신료들이 유리왕의 태자인 일성(逸聖)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일성은 비록 왕위를 이을 적 장자이나 위엄과 현명함이 파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마침

46) 증고기 김씨의 근친혼은 보통 폐쇄적인 신분제 속에서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행해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 시기는 왕위 계승 원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혈통의 순수성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고기 김씨의 근친혼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다.

47) 탈해이사금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 연장자라는 점도 있었지만 남해차차웅의 사위인 점, 혁거세왕의 사자(使者)로서 박씨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호공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 등 박씨 세력과의 연결성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탈해이사금 이후 왕위가 다시 박씨로 넘어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을 것이다.

내 파사를 임금으로 세웠다. 파사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로 씬씀이를 줄이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훌륭하게 여겼다.⁴⁸⁾

파사이사금의 왕위 계승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 자-1에서는 탈해이사금이 죽고 일성이사금을 왕위에 세우려고 했던 세력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일지갈문왕이 남해차차웅이 죽기 전에 일성이사금을 낳았다는 점, 친형제는 아니지만 『삼국사기』에서 일성이사금을 파사이사금의 형이라고 본 점 등을 통해서 일성이사금이 파사이사금보다는 연장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일성이사금의 세력은 파사이사금을 왕위에 올리려는 세력에 의해 저지되었다. 파사이사금이 왕이 된 것은 일성이사금보다 위엄과 현명함이 있다고 기록하였으나 이는 후대의 윤색된 기록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상 일성이사금과 파사이사금간의 세력 싸움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파사이사금이 이긴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일성계와 파사계의 대립구조

이처럼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은 탈해이사금 이후 왕위 쟁탈전을 펼

48)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즉위년조 “初脫解薨 臣僚欲立儒理太子 逸聖 或謂 ‘逸聖雖嫡嗣 而威明不及婆娑’ 遂立之 婆娑節儉省用而愛民 國人嘉之”

쳤다. <그림 4>를 보면 두 세력의 모계와 왕비족이 김씨와 박씨로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즉, 파사이사금은 허루갈문왕을 필두로 한 김씨 세력, 일성이사금은 지소례왕을 필두로 한 박씨 세력이 지지했을 것이다. 이 두 세력을 전대(前代)에서부터 대립적으로 보아 ‘일지계’와 ‘나로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⁹⁾ 이는 파사이사금을 나로의 아들로, 일성이사금을 일지갈문왕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의 전대(前代)를 살펴보면, 파사이사금의 부(父)라 할 수 있는 유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의 부(父)인 일지갈문왕은 형제 관계이면서 혼인 관계로 엮여진 사이이다. 즉 이때는 이 둘의 관계가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그 아들 세대, 즉 일성이사금과 파사이사금 때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세력을 ‘파사계’와 ‘일성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⁵⁰⁾

이 대립구도를 통해 파사이사금이 유리이사금의 아들이지만, 일지갈문왕의 딸의 소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리이사금은 일지갈문왕의 딸과 혼인하지만, 사요왕의 딸 김씨와도 혼인한 것으로 본다면,⁵¹⁾ 파사이사금은 사요왕의 딸 김씨의 소생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파사이사금과 일성이사금의 대립구도가 설명이 된다. 즉 파사이사금은 사요왕과 허루갈문왕의 김씨 세력⁵²⁾의 지지를 얻게 되어 탈해이사금 이후에 일성이사금을 누

49) 강종훈, 2000 앞의 논문

50) 파사이사금의 부(父)가 유리이사금인지 나로인지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로계’로 보는 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대립구도의 당사자인 ‘파사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51) 파사이사금 모(母)의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 『삼국유사』에서 사요왕의 딸 김씨만 나온다.

52) 허루갈문왕은 『삼국사기』 파사이사금 즉위년조에서는 김씨로 나오지만, 유리이사금 즉위년조에서는 박씨로 나온다. 이 외 사료에는 허루가 김씨인지 박씨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듯하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황 상 같은 한기부 출신인 마제갈문왕이 김씨인 것을 근거로 하여 허루갈문왕도 김씨일 것으로 보았다. 이 글 역시 그 흐름속에서 허루갈문왕을 김

르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⁵³⁾

이렇게 보면 박씨 왕족 왕위 계승 원칙에 있어서 변화가 보인다. 파사이사금 이전까지는 남해차차웅의 유언에 따라 아들이든 사위든 어질면서도 연장자를 우선으로 해서 왕위가 이어졌다. 따라서 남해차차웅이 죽은 뒤 연장자인 일지갈문왕이 아니라 차자인 유리이사금이 왕이 된 것은 일지갈문왕이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유리이사금은 역시 죽을 때 같은 세대에 연장자인 탈해이사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탈해이사금에게 물려주었다.⁵⁴⁾ 탈해이사금은 그 아래 세대 중 연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으나 ‘파사계’와 ‘일성계’가 기존의 연장자 우선 원칙과 상관 없이 왕위 쟁탈전을 벌인 것이다. 그 결과 파사계의 승리로 파사이사금이 왕위에 올랐고, 이 후에는 왕위계승이 연장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 즉 직계인 지마이사금에게 넘어갔다. 이는 파사이사금이 일성계와 왕위쟁탈전에서 힘겹게 승리한 뒤 왕위를 자손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파사이사금 이후에는 왕위계승이 적자계승의 논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마이사금에게 아들이 없자 다시 연장자 우선 원칙이 적용 되어 당시 가장 연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일성이사금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일

씨로 서술하였으나 논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루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53) 파사이사금의 왕위 계승을 파사이사금이 허루계와 결속하여 마제계와 결합된 일성을 압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권대석, 1989 앞의 논문, 7쪽). 그러나 일성이사금과 마제계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 54) 석씨인 탈해이사금은 연장자 우선이라는 ‘박씨왕족’ 왕위계승 원칙에 따라 즉위하였다는 점에서 모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47)에서 설명하였듯이 석씨 왕위계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대 벌휴이사금 전까지 적어도 탈해이사금은 석씨이기는 하나 박씨왕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성이사금과 지마이사금은 한 세대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파사이사금과의 왕위 세력 다툼에서 패배했던 일성이사금의 세력이 아직 잔존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지지가 연장자 우선원칙을 당시 상기시킬 수 있었으며, 일성이사금이 왕위에 오르게 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일성이사금은 즉위 초 금성에 정사당을 설치하여 새로운 정치 공간을 삼았다.⁵⁵⁾ 파사이사금과 지마이사금은 전대의 궁실인 금성이 아니라 월성을 축조하여 궁성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성이사금대 다시 금성으로 옮긴 것은 파사이사금과 지마이사금에 의해 좌절되었던 일성이사금의 즉위가 정통 왕위의 복위(復位)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였다고 이해된다.⁵⁶⁾

한편으로 일성이사금의 아들인 아달라이사금이 지마이사금의 딸과 혼인을 했다는 것은 일성계와 파사계의 대립이 해소되었거나 장기적이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의 혼인은 지마이사금에서 일성이사금으로 왕위가 넘어져 온 시기에 박씨왕족의 두 계파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행해졌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일성이사금 이후 아달라이사금이 왕위에 오른 것은 일성이사금의 아들로써가 아니라 연장자로써 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성이사금이 늦게 왕위에 올랐으므로 이미 아달라이사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박씨 왕족의 왕위계승은 남해차차웅의 유언에 따라 연장자 우선 원칙이 기본이었다. 즉 직계, 장자계승에서 벗어난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씨인 탈해이사금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다시 박씨로 왕위가 넘어오는 과정을 보였다. 그러나 중간에 파사이사금-지마이사금이 부자관계로써 왕위가 계승된 것은 일성계와 파사계의 정치적 대립의 결과로서 나타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5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5년조 “春二月 置政事堂於金城”

56) 최광식·박대재 역, 2014 앞의 책, 70~71쪽 ; 박대재, 2014 앞의 논문, 350~353쪽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상대 박씨 왕족의 계보도를 살펴보았다. 왕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해보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좀 더 활발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1대~8대까지 박씨 왕의 계보도는 큰 틀에서 완전히 바뀐 것은 없지만 몇몇 인물들을 추정함으로써 박씨 왕족의 왕위계승의 원칙이 변화되는 시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일지갈문왕을 남해차차웅의 장자(長子)이자 유리이사금의 형이며, 일성이사금의 부(父)로 추정하였다. 일지갈문왕은 유리이사금의 형이긴 하나, 남해차차웅보다 먼저 사망하며 왕위계승자의 후보가 될 수 없었다.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즉위한 유리이사금은 형인 일지갈문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시기는 추측하건대 즉위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리이사금의 아들인 파사이사금의 모(母)는 일지갈문왕의 딸이 아니라 사요왕의 딸 김씨일 것으로 보인다. 유리이사금이 사요왕의 딸과 언제 혼인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세력 공고화를 위해 즉위 바로 직전이나 이후 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파사이사금은 사요왕의 딸 김씨의 소생으로 김씨 세력의 지지를 받게 되고, 일지갈문왕의 아들인 일성이사금은 어머니인 이간생 부인과 아내 지소례왕의 딸이 모두 박씨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받아 파사이사금과 왕위를 두고 대립하게 된다.

당시 왕위계승은 남해차차웅과 유리이사금의 유언에 따라 연장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탈해이사금 이후 파사이사금이든 일성이사금이든 연장자가 왕위에 오르면 간단한 문제였으나 이 둘의 대립으로 인해 왕위계승 원칙이 깨져버리게 되었다. 결국 파사이사금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적자계승 원칙 아래 지마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그러나 지마이사금이 무자(無子)인 관계로 다시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일성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연장자 우선 원칙이 다시 적용되었던 배경에는 일성계의 세력들이 아직 잔존하여 크게 힘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비교하고 상호 보완하여 이해하면, 두 기록 중 하나로만 계보도를 정리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박씨 왕족의 왕위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보도 정리는 기년문제가 주류였던 신라 상대 연구에 좀 더 다양성을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한편으로는 계보를 정리한 뒤 기년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상고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다.

투고일자 : 2017. 07. 20. 심사일자 : 2017. 08. 22. 게재확정일자 : 2017. 08. 22.

주 제 어 : 박씨왕족, 왕위계승, 일지갈문왕, 일성계, 파사계

Key words : Park House Royal figures, succession of the throne, Ilji Galmun-wang, the Ilseong line, the Pasa line

참고문헌

- 강종훈, 2000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선석열, 2015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혜안
최광식 박대재 역, 2014 『삼국유사 3 왕력』, 고려대학교출판부
한국고대사학회, 2007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
- 권대석, 1989 「新羅上古 三姓集團의 王位繼承에 대한 考察」 『論文集』 11
금서룡, 이부오 외 역, 2008 「신라갈문왕고」 『신라사연구』, 서경문화사
김철준, 1968 「신라시대의 친족집단」 『한국사연구』 1
박대재, 2014 「신라 초기 國邑과 6村」 『신라문화』 43
서의식, 2007 「新羅 ‘上代’ 葛文王의 冊封과 聖骨」 『歷史教育』 104
선석열, 2011 「사로국의 지배구조와 갈문왕」 『역사와 경계』 80
신학대, 2000 「新羅 初期 朴氏·昔氏集團의 對立에 대한 小考」 『명지사론』 11·12
이기백, 1973 「新羅時代의 葛文王」 『歷史學報』 58

<Abstract>

Lineage of the Park House Royal figures in the Shilla dynasty's Sangdae(上代) period, and Succession of the throne

Yang Ja-ryang

Reconstructed in this article is the lineage of the Park House royal figures, to be analyzed for their relationships (and in some cases multiple relationships) with several kings, in order to determine how the successor to the throne was usually decided. For this task, a lineage table based upon data extracted from *Samguk Sagi*, and another lineage based upon information suggested by *Samguk Yusa* were both created, but neither one was dismissed. Information from both texts were simultaneously examined and cross-referenced to be verified. Discrepancies between both records may provide us with cause for further examination, but hopefully, will ultimately lead to a more comprehensive lineage table based upon information embedded in both texts.

The most crucial figure to note in the task of recreating lineage of the Park house royal figures is no other than Ilji Galmun-wang. In various texts, he is either recorded as the father-in-law(妃父) of Yuri Isageum, or the father-in-law of Ilseong Isageum, or even the father of Ilseong. By comparing relevant data suggested in both *Samguk Sagi* and *Samguk Yusa*, we can safely theorize that Ilji Galmun-wang was actually the older brother of Yuri and father of Ilseong, which makes Ilseong and Pasa Isageum not brothers but cousins.

In this period, the oldest son was not automatically granted the status of a successor to the throne, and such successor had to be equipped with competence and experience. But the Ilseong line and Pasa line, which originated from different founding fathers, fought with each other over the throne, and Pasa -who was younger than Ilseong- became the next king. Later the thrones were succeeded by the oldest and legitimate sons.

Conflicting records should all b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process in order for the lineage to be newly reconstructed. The result would be a new understanding of the throne-succession process of the Park house royal figures, which was previously believed to have been rather uneventful but turned out to be actually quite turbulent due to internal conflicts. We can also see certain changes in principles unfolding, concerning the throne succession process itself.